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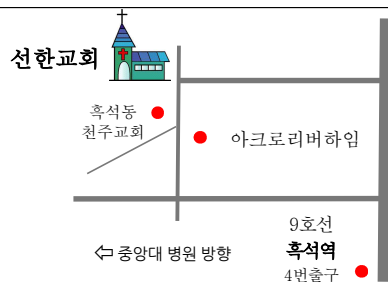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2: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 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이금춘, 김인실
	박 희 태, 유 신 웅		조나단, 강야엘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22)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 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5장 (통일찬송가 55장)

교 독 문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찬 양 과 경 배 220장 (통일찬송가 278장)

기 도 함심기도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16장 13 ~ 24절

설 교 **마지막 당부의 인사**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추가적인 교훈 (잠24:23-34)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 나누어 드립니다.
2부예배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 주중예배: 대면예배로 드리고
금요기도회는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운 영 위 원 회** 2부 예배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층 바울실
- 개인경건훈련안내**
 - 가정예배드리기
 -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 성경읽기
 - 경건서적읽기
 -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수험생을 위한 기 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녁 8시,
올해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 김유진, 김필립, 이지은, 장민우
수능일 : 2021년 11월 18일(목)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과 담대함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 수시모집 지원 후 면접과 실기 준비중에 있는데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 어려움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되도록
-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 되도록

가정예배	강함과 약함
찬송 : ‘목마른 내 영혼’ 309장(통 409) 본문 : 사사기 14장 5~20절 말씀 :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삼손은 갑자기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어쩌면 삼손 안에 내재돼 있던 블레셋에 대한 반감 때문에 시비를 걸었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삼손은 수수께끼에 걸린 상품으로 겔옷과 베옷 30벌을 걸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을 내기에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상품이 걸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수께끼를 풀고 말겠다고 다들 혈안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삼손의 신부가 될 여자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로부터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습니다. 삼손은 이런 블레셋 사람들을 보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옆 동네로 가서 사람들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해온 옷을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던져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 화가 누그러지자 삼손은 새 신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처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처가 식구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고 맙니다. 장인은 새 신부를 친구에게 줘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인 1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삼손이 맺은 약속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그 약속의 힘이 드러난 현장은 삼손의 괴력을 느끼게 해줬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니 심한 갈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나귀 턱뼈를 내던지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물을 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물이 솟구쳐 나왔던 겁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죽을 것 같은 갈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약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이것을 자랑삼아 크게 외치던 삼손은 목마름 탓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타고난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물뿐인 인생입니다. 무엇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으며 사는 삶,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마지막 당부의 인사 (고전16:13-24)	
서 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론	1. 마지막 당부 (1) 5가지 명령(13-14절): ①깨어 있으라 ②믿음에 굳게서라 ③남자답게 행하라 ④강건하라 ⑤사랑으로 행하라 (2) 칭찬한 사람들: ①스데바나의 집(15절):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16절) ②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17절):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18절) (3) 문안인사와 축도(19-24절):‘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22절)	
	2. 교훈 (1)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2)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3) 성도간에 서로 돌아보며 축복하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가?	
	결 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깨어서 사랑으로 섬기며 문안하며 필요를 채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합심기도	조계승 장로

매일 Q.T.		온 세상을 뒤흔드는 통치자의 두려운 권능	날짜 : 10월 25일
찬양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본문	욥기 12:13-25		
말씀요약	모든 지혜와 원능, 계략과 명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사와 재 판장, 왕과 제사장, 권력있는 자를 어리석게 하시고 멸시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목상질문 1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12:13-15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중 ‘권능’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위에서 재앙과 파괴로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목상질문 2	인간 사회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 12:16~25 욥은 하나님이 파괴적으로 행동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최근에 내가 두렵다 고 느낀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한절목상	욥기 12장 13절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욥이 말한 것은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의 속내는 자신을 파괴하시는 하나님께 항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죄를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죄인을 구원해 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은 택하신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지혜와 권능의 주인이시오 지략과 명철이 한없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 하게 하소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완 전하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께 순복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새 369)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 400m 준결승 경기에 출전한 영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해 스물두 번의 수술을 하고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와 함께 선두로 달리던 그가 갑자기 트랙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근육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경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응급 치료진이 달려왔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리려고 했으나 몇 발자국을 뛰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와 그를 부축해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팔로 아들의 허리를 감싸 부축한 후 함께 결승선까지 천천히 달렸습니다. 구름 떼와 같은 관중이 일어나 환호하며 격려했습니다. 결승선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손을 놓고 아들이 혼자 결승선을 넘게 했습니다. 아들 데릭 레드몬드과 그의 아버지 짐 레드몬드가 만들어낸 눈물의 감동 드라마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켜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한 인생이 될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나누기	욥기 14:1~12	
묵상포인트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드는 꽃과 사라지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의 불의를 의로 바꿔 주시며,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끝에는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욥은 나무와 사람을 비교해 인생의 허망함을 어떻게 고백했나요?(7~10절)	
적용하기	제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드는 꽃과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제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드는 꽃과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아픔과 슬픔 중에 꿈꾸는 불가능의 가능성	날짜 : 10월 29일
찬양	찬송가 386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본문	욥기 14:13~22		
말씀요약	욥은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자신을 숨겨 주시고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모든 고난을 참고 기다릴 테니 자신의 죄와 허물을 봉하고 싸매 달라고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산이 무너지고 물이 티끌을 씻어 버리듯, 사람의 희망을 한순간에 끊어 버리시는 분입니다.		
묵상질문 1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14:13~17 ‘스올에 감추어 달라’는 요청에서 욥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요? 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곧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확신하나요?		
묵상질문 2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하나님 14:18~22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한다’는 표현(22절)에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육체의 고통은 나의 내면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한절묵상	욥기 14장 19절 욥은 물이 돌을 닳게 하듯, 하나님의 사람의 소망을 끊으신다고 한탄합니다. 자신에게 있던 견고한 믿음과 소망이 점차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소망을 끊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과 소망을 더욱 선명하게 하지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시 146:5).		
적용			
오늘의 기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사람의 희망을 끊어 놓으셨다’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에서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몸부림을 봅니다. 홍수가 티끌을 쓸어버림같이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자리에서, 참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 생명이 피어나게 하소서.		

매일 Q.T.		쓸모없는 의원 같은 무익한 친구들	날짜 : 10월 26일
찬양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본문	욥기 13:1-19		
말씀요약	욥은 자신도 친구들만큼은 알고 있다며, 전능자와 변론하겠다고 말합니다. 욥에게 친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일 뿐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변론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재 같은 속담에 불과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결국 의롭다고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묵상질문 1	친구들에 대한 욥의 평가 13:1~13 욥이 친구들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모없는 의원’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어떤 친구로 평가받을까요?		
묵상질문 2	하나님께 변론하려는 욥 13:14~19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의한 상황에게 내가 하나님께 변론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욥기 13장 1절 하나님을 하는 지식에는 끝이 없습니다. ‘다 보고 듣고 깨달았다’는 욥의 주장은 설부르고 오만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의 무지함을 폭로하실 것입니다(38~41장). 그리고 그때서야 욥은 자신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할 것입니다(24:5). 더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교만해 만용을 부리지만, 지혜로운 자는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벧후 3:18).		
적용			
오늘의 기도	거짓을 속삭이는 허망한 자들의 소리로 영혼의 위안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기에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가 당한 일을 아뢰며 전능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어떤 말씀이든 달게 들겠으니 제게 말씀해 주소서.		

매일 Q.T.		나의 죄와 허무를 내게 알게 하소서	날짜 : 10월 27일
찬양	찬송가 397 주 사랑 안에 살면		
본문	욥기 13:20~28		
말씀요약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시거나 두렵게 하시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신이 대답할 것이라며, 자신이 말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길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셔서 자신이 젊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질문 1	내게 두 가지일을 행하지 마소서 13:20~22 하나님과 욥 사이에 ‘부름’과 ‘응답’이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교제를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묵상질문 2	어찌하여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13:23~28 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 달라는 욥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내 죄보다 더 크게 책망받는다고 느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한절묵상	욥기 13장 24절 하나님이 얼굴을 비취 주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그분 얼굴을 숨기지 마실 것을 애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심이 은혜요, 가리심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시 30:7). 죄를 쏘아 보시는 하나님 얼굴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 얼굴은 어둠 가운데 빛이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는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울부짖는 욥의 절규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저 역시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으며 죄를 토설합니다. 원수가 아닌 친구로 저를 받아주소서		

매일 Q.T.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삶	날짜 : 10월 28일
찬양	찬송가 487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본문	욥기 14:1~12		
말씀요약	사람은 걱정이 가득하고, 꽃처럼 시들며, 그림자같이 사라집니다. 욥은 이런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사람의 날과 달 수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무는 썩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오므로 희망이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묵상질문 1	인간의 부정함에 대한 변론 14:1~6 욥이 인간의 부정함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시 143:2)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닐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한 번 죽음으로 사라지는 인생 14:7~12 잘린 후에도 자라는 나무와 비교할 때 인간의 죽음은 어떠한가요?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기에 이 땅에서 나온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절묵상	욥기 14장 1절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운 인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짧은 삶이 걱정으로 가득하다고 한탄합니다. ‘걱정’(히, 로게즈)의 어원‘흔들다’ 또는 ‘떨리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을 혼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욥을 혼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1:22)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체휼하시고자 친히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주님의 성육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죽으면 소멸되는 육체의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주님! 진리를 깨닫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도록 이끌어주소서		